

중동과 유럽의 난민동향 시사: 유엔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세계 난민은 8 천 2 백만 명이 넘습니다. 신음하고 탄식하는 인류의 한 모습입니다. 난민선교를 하면서 중동과 유럽의 난민동향을 국가적으로 살피기 위해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난민발생국(아프칸, 이란, 중동), 둘째는 난민경유국(터키, 그리스와 동유럽)과 셋째로 난민정착국(서유럽과 북유럽)입니다.

중동과 벨라루스에서의 난민발생 여부: 난민 발생국인 시리아의 알 아삿 대통령은 총선에서 95%의 4 선 대통령 당선과 함께 반정부 구룹들에게 더욱 강력히 대항하겠노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우 시리아 북동부의 쿠르드민족이 시리아와 터키로부터 어려움을 겪을 때 난민 발생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만일 시리아에 있는 투르크민족이 억압을 당하고 궁지에 몰리면 터키정부가 형제애를 빙자하여 반기를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리아 내란은 10 여개 이상의 종족구룹과 민병대가 연류된 혼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되 온 반 민주주의 벨라루스 정부에 대한 최근 유럽연합(EU)의 경제적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벨라루스의 누카센코 대통령은 유럽으로 향하다가 벨라루스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아프칸, 시리아, 이라크난민)과 새로오는 난민들에게 벨라루스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갈수 있는 통로의 문을 개방하겠다는 난민카드를 들고 유럽연합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난민 경유국인 그리스는 지난 5 월 터키 국경을 해상으로 넘어 그리스로 진입하는 난민들에게 음파대포를 발사했습니다. 그후 EU(유럽공동체)는 EU 가 그리스에 지급하는 난민정책금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합당치않고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할 때, 그리스 정부는 자신들은 정당한 방어를 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난민문제는 EU 내에서도 민감한 논란의 대상입니다.

독일의 일반적 상황: 독일은 제 3 차 코로나 록다운이 2 주전에 끝나고 레스토랑도 방역대책을 조건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공동체 생활을 그리워하며 어디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물론 커피집에도, 함께 할려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수십개국의 코로나 위험 지역을 해제하고 항공로선을 다시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델타변이의 확산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큰 고심 중에 하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백신접종 안건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듯이“나 „모두“ 란 개념이 없고 다만 „자진하여 원하는자“에 한하여 접종을 하기 때문에 정부와 보건 당국은 고심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난민사역: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방역대책을 하면서 대면예배를 중단없이 드렸왔습니다. 대면예배에서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원근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보다 설교 말씀을 집중하여 심중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수많은 환경적 어려움을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극복하는 것을 확인하니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난민이 다수인

대면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식사가 아직은 금지되어 있어서 적은 음식 봉투와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장 대면예배와 동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 중에 몇 개의 소그룹별 줌 미팅으로 지난주 **설교말씀 나누기**와 **성경본문 쓰기**, **기도와 교제**, **그룹별 온라인 성경공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개인별 방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케어 사역 1: 장기간 동안 대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으로만 예배를 여기 저기서 드리면서 어려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직접가서 방문하거나 또는 간접 심방(줌이나 기타 온라인 통하여)으로 보살펴 왔습니다. 방문을 갈수 없는 곳에 있는 난민들에게는 필요한 물품과 성경을 넣어 포장한 소포상자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난민은- **자기 평생에 가장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었다고**- 답신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과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감사하게도 큰 부작용 없이 치료되곤 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교회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생활권에서 되었습니다.

난민케어 사역 2: 어려운 사람들이 저의 사역 주변에 있는 동안 구제와 각종 관청 서류 대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 난민청과 행정법원으로부터 강제추방을 받은 **난민 보호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민심사에서 결격되고 강제 송환명령을 받은 딱한 난민들이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재심사 신청을하는 동안 정부로 부터 일체의 생활비와 숙소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 때 숙식비를 보조하며 심령과 생활면에서 극도의 어려움을 겪는 난민들을 위해 호스트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 재 심사시까지 보통 1 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례식 준비공부: 매년 여름에 켈른의 라인강에서 침례식을 해왔는데 (2020 년은 8 월), 금년에도 현재 8 명이 8 월 1 일(주일)에 있을 세례식 준비 공부를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주일예배에서는 만나고 마지막 주간에는 직접 만나서 그동안 공부를 점검하고 식사도 함께 할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잃은 한 영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고 감사해 왔는데 이번에도 대부분 이슬람권 출신 난민들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이슬람 권에서 속아서 살아왔고 전엔 몰랐던 바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여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앞으로의 몇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고, 새 생명의 삶을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해봅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빛과 소금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선교사로, 신학자로 양육되기를 심히 원하고 있습니다. 세례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어서 마음이 대단히 아픕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됩니다.

저의 주변에서 온라인 설교를 기쁘게 들으면서 예배에는 참석하고 있는 한 장년 회교인에게 이번에 세례식 공부가 시작되었으니 세례받을 의사가 있으면 참여하도록 초청을 했더니 반응인즉, 강력한 부인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만일 세례공부에 참석하는 것이 세례와 연류되어 있다면 나는 강력히 거절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슬람 국가로써 이슬람을 떠나 세례를 받고 기독교나 타종교로 개종한다면 그는 사형에 해당되니 나는 더 이상

우리 나라에 갈수 없게됩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슬람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십니까?- 라는 메세지를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런 메세지를 통하여 큰 위험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기로 작정한 세례자들을 그들의 시각에서 생각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례공부 참석자 중에는 미국 청년 시메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12 년전 독일에서 현재 연극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코빗 기간에는 극장이 문을 닫아서 일을 하지 못하고 생활도 어려웠습니다. 이 청년은 현재 30 가 넘는 스마트하게 보이는 청년인데 특별한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몇 주전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과거사를 얘기 할때 상담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이 청년은 12 세가 되면서 부터 남성들이 성적으로 친근해 보였다고합니다. 미국에서 신앙이 견고하고 설교도 했던 그의 아버지와 가족님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인 방향과 생활이 성경과 다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도 떠나 14 년 전에 독일에 홀로 왔습니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직업인 극장까지 왔습니다. 성적으로 다른 남성과 동거를 1 년 전까지 했고 마약도 했습니다.

미국에 계시는 자기 아버지가 인터넷을 통해 저희 교회를 찾아 아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시메온 이 2020 년 6 월 혼자서 교회를 찾아 왔습니다(그 후로 그 아버지도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저희 예배를 영어 통역을 통해서 현재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메온은 주일 예배를 거르면서도 떠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소리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청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던 것입니다. 처음 상담시에 자기는 이 교회가 좋고 설교를 기쁘게 듣는다고했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 할 때면 조금도 주저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원천적인 설교를 하는데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청년이 세례식 준비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비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세례를 받을 것인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 청년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심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에이펜 사역: 에이펜이란 중동과 유럽에서 페르시아와 아랍어권 한인 난민선교사 네트워크입니다. 처음 6 년 전엔 지역적으로 중동과 유럽으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한국에도 아랍어권 사역자가 있고, 동남아에도 페르시아권 난민 사역자들이 있어서 에이펜 사역 지역이 확장되었습니다. 1 년 전까지 제가 에이펜의 대표로 있다가 지금은 독일 코디(실행위원)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액츠)의 난민연구소 해외 정책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다른 난민사역자들을 케어하고 합당한 전략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지원하는 직분입니다. 이런 의도에서 7 월 말 경에도 서울에서는 대변으로 그리고 대부분 비대면으로 중동과 유럽 그리고 타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러나 팬데믹기간에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팬데믹 기간의 난민사역 돌출구“란 주제로 써미나를 하게됩니다.

신학교 강의사역: 선교지 몇 군데의 신학교 강의사역을 하는 중에 이번 여름에는 미주 장신대에서 소위 온라인 원격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위해 철저히 준비된 신학교의 원격강의 시스템이 쉽지않아서 배워가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과를 강의하든지 생명이 되는 복음적 신학을 통해 후학도 양성에 참여케 됨을 주님과 관계되는 사역자님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녀소식: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와 함께 교회에서 여러가지 동역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저희 막내아들 나사로가 9 월 3 일에 독일 시청 호적계에서 결혼식 이후 같은 날 저의 주례로 결혼을 하게됩니다. 신부는 독일 자매로서 아들을 따라 와서 교회 생활하다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세례도 받고 많은 일손이 필요한 교회에서 여러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중단없이 사역이 진행되도록(영혼구원, 성장, 선교와 구제)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해 주신 분들과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까지 평안하소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형제자매들이 어려운 기간에도 신앙생활에 나태하지 않고 깨어 있도록,
- * 주일예배와 주간의 구룹활동에 참여하고 힘을 얻고 소망중에 살도록,
- * 팬데믹 이후의 선교와 교회의 활성화가 되도록,
- * 회교권출신들이 대다수인 세례식 준비기간에 갈등과 방해가 아닌, 진리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되도록,
- * 세례식 준비기간을 통해 시메온의 병든 영혼과 육신에 치료가 되고, 아울러 순종하여 세례를 결정하도록
- * 함께 사역하는 저희가족(아내와 아들 포함)에게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각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지치지 않도록,
- * 여러모양으로 복음전파와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짓밟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하고 거룩한 승리를 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021 년 7 월 감사드리며 나승필/국루디아/나사로 (독일)



지중해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보트

사진으로 보는 사역의 이모 저모입니다. 사진설명: 유튜브 온라인 설교를 듣는 난민들, 교회에 찾아온 가족들, 주 중의 온라인 미팅, 위급한 환자 심방. 맨아랫사진: 페르시아, 아랍어성경쓰기

